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졸속 제작 '자스민 광주' 새로움 없었다

사람이 머물다 간 공간, 아름답고 애절한 감정의 물결이 파도처럼 스쳐지나간 자리들은 그곳이 단순한 일상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름답다. 그리고 또 쓸쓸하다. 과연 우리 인생 곳곳에 뿔린 구멍들 같은 여백을 음악이 메울 수 있을까? 미국 독립영화작가인 리처드 림블레이터 감독의 영화 '비포 선라이즈'는 고뇌하는 청춘의 행간, 이성과 감성이 자꾸만 충돌하는 순간을 빈의 풍광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이른 아침, 모든 놀이기구가 멈춰진 프러너 공원, 사랑의 시를 함께 낭송하던 강가 산책로, 사랑의 예언자가 함께 했던 거리의 식당, 멋진 오페라 극장이 내려다 보이는 알베르티나 계단. 풍경은 그대로이지만 사람이 떠나고 없는 한적함과 쓸쓸함.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풍경을 위로 하프시코드의 반주에 실려 첼로의 노래가 흐른다. 바흐의 첼로(비올라 다감바) 소나타 1번 안단테 약장. 사람이 떠나고 사랑이 머물던 빈 공간에 흐르는 바흐의 음악은 모든 공허함을 대신한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바흐의 음악인 것이다.

'나는 광주다. 내 이름은 광주다.'

가방을 든 사내가 무대에 등장한다. '오월 어느날'이 세상을 떠난 땅이다. 그의 혼을 위로하는 무녀들의 소리과 쇠뿔이 이어지고, 사내는 그 상처를 하나둘 내려놓는다.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한 광주 브랜드 공연 '자스민 광주'가 2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첫선을 보였다.

▲씻김으로 풀어진 오월 광주

공연의 큰 틀은 진도 씻김굿이었다. 광주의 영령들과 최근 발생했던 튀지니 등 세계 각국 민주화 영령들의 상처까지 위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제의 의식이다. 마지막 이승의 한과 미련을 상징하는 고를 풀고, 길 닦음을 하는 등 씻김굿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스민 광주'는 광주항쟁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대에 올리기에는 '너무 늦게 온' 작품이었다. 새로움은 없고, 다소 변한 작품 전개가 극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떨어트렸다.

출연자들이 먼저 떠난 영령들을 위해 길 닦음을 하는 장면 등에서는 일부 관객들이 눈물을 보이는 등 감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작품은 전반적으로 낮은 장면들의 연속이었다. 이미 수년전부터 무용, 연극, 마당극 등 광주 지역 개별 단체들이나 오월 행사 등에서 수시로 무대에 구현했던 장면들이었다.

일부에서는 진도에서 상설공연으로 진행하는 '씻김굿' 한편을 보는 게 낫겠다는 푸념도 나왔다.

영사작업도 다소 식상했다. 5·18 영령들의 사진을 나열하고, 5월 항쟁 스틸들을 모아 둔 것에 불과한 영상과 화면에 띄워지는 지나치게 많은 문구는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거나, 감동을 주지 못했다. 늘 보던 풍경에서 달라진 건 딱 하나였다. 튀지니 청년들의 모습이 삽입된 것 정도.

또 '자스민 혁명'과의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제작의도나 자막 등에서만 줄곧 언급된 뿐 제작 '작품' 속에서는 전혀 '자스민'이 드러나지 않았다.

음악감독 등이 외지인들인 점은 일정 정도 감안하더라도 '소리의 고장', '국악의 메카'라는 광주 지역 국악인들이 배제된 채 타 지역 국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광주 브랜드 공연의 목적은 외지 관객들이다.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광주 대표작으로 소개하기에는 5월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고 시종일관 무거운데다 소리나 국악 연주가 너무 길어 다소 지루한 감도 있었다.

▲검증과정 없어 아쉬움

'자스민 광주'는 무엇보다 작품성 여부를 떠나 제작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당초 시의 주도로 '광주 대표 작품'이 제작된다는 소식에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높았다. 민간단체들의 경우 제작비 마련에 애를 먹지만 시가 주도하면서 일단 예산 확보에 승용이 트이는 터라 작품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에디터러행'이 작품의 발목을 잡았다. '브랜드 공연' 첫 기획회의가 시작된 게 지난 2월 14일이었고 제작진은 4개월여 만에 작품을 완성해왔다. 광주시장이 지난해 에디터러와 체결한 MOU에 따라 8월 공연을 밀어붙여야 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물론 제작 기간이 길다고 해서 꼭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다 '광주의 얼굴'이 될 대표작을 만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이날 공연된 '자스민 광주'에 투입된 제작비는 5억원이다. 여기에 오는 8월 13~19일까지 영국 에디터러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연하는데 4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 대관료 4000만원을 비롯해 운송비, 무대제작비, 체류비 등 출연자 26명을 포함, 총 42명이 사용하는 금액이다. 광주 지역 각 구를 돌며 공연하는 예산도 약 5000만원을 확보해 둔 터라 이번 작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쇼케이스나 공개 리허설 과정 등 단 한차례의 검증 과정도 없이 1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지적이다.

문화계 인사 A씨는 "이미 에디터러행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작품을 수정한다고 해봤자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어디서 공연을 했다는 '성과' 하나만을 남기기 위해 너무 큰 예산을 쓰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일 첫선을 보인 광주 브랜드 공연 '자스민 광주'는 투입된 제작비 등에 완성도가 다소 떨어져 아쉬움을 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 518·세계 민주화 영령 위로 씻김굿 공연 비용만 10억원 투입... 지나치게 무거운 극 구성 부담 쇼케이스 등 없이 4개월만에 급조... '에디터러행' 성과 급급

비는 5억원이다. 여기에 오는 8월 13~19일까지 영국 에디터러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연하는데 4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 대관료 4000만원을 비롯해 운송비, 무대제작비, 체류비 등 출연자 26명을 포함, 총 42명이 사용하는 금액이다. 광주 지역 각 구를 돌며 공연하는 예산도 약 5000만원을 확보해 둔 터라 이번 작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쇼케이스나 공개 리허설 과정 등 단 한차례의 검증 과정도 없이 1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지적이다.

문화계 인사 A씨는 "이미 에디터러행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작품을 수정한다고 해봤자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어디서 공연을 했다는 '성과' 하나만을 남기기 위해 너무 큰 예산을 쓰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포 선라이즈' 중 바흐의 '첼로 소나타 1번'

청춘의 행간, 삶의 여백을 메우는 음악

두 주인공과 관객들에게 다가선다.

사랑은 음악과 함께, 음악을 타고 온다고 누가 말했는가.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잊지 못하는 장면, 중고 LP(레코드)상에 함께 들어간 그들은 케스 블룸의 저 유명한 노래 'come here'를 테이퍼블로 함께 듣는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될 사이라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멋진 장면이다.

결국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국적이며 문화적 자유로움이 충만한 도시 빈의 풍경들이 사랑의 공간으로 뒤바뀌는 체험을 한다.

제시와 셀린이 헤어지기 위해 열차역으로 가는 순간, 카메라는 처음으로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그들이 함께 다녔던 빈의 장소들을 천천히 복기시켜준다.

있다. 질풍노도처럼 밀려드는 감정의 기복조차 바흐의 음표들 앞에서는 진논케 비처럼 아스라이 사라져간다.

영화에서 직접 사용된 연주는 유명한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다. 요요마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녹음한 음반으로 바흐에 대한 존경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낭만적인 서정을 숨기지 않는 연주다. 요요마의 녹음과 전혀 다른 연주를 듣고 싶다면 다닐 샤프란의 연주가 좋다. 로스트로포비치와 쌍벽을 이뤘지만 주로 러시아에서만 활동하여 뒤늦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연주자로 1630년제 멩기 안토니오 아마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닐 샤프란의 녹음은 기교를 초월한 진정한 음악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최종민 교수와 국악여행 떠나요"

문예회관 20주년 기념, 6일 '해설이 있는 음악회'

광주문예회관이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특별기획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첫번째 주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심인택)이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70회 정기 연주회인 이번 공연은 국악평론가 최종민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펼쳐진다.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최 교수는 방송과 공연장에서 해박한 지식과 구수한 입담으로 널리 알려진 국악전도사. '명작·명곡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무대에서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깊이있는 해설로 관현악, 거문고 협주곡, 플루트협주곡 등 다양한 음악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최교수는 전남대·안동교육대 교수, 국립창극단 단장 등을 거쳐 현재 국립극장

예술진흥회장, 국악방송(월~토 오전 9시~10시)의 '최종민의 국악산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권은실 작곡의 관현악 '하늘소리, 청성'을 비롯해 정대석 작곡의 거문고협주곡 '수리재'를 서덕은(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차석)이 공연하며, 김희조 작곡의 플루트협주곡 '무용한 상곡'을 이현경(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이 연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5월 공연된 창극 '속대머리' 가운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거문고 서덕은 플루트 이현경

었던 테마곡들이 조혜리(광주시립국극단 상임)씨의 소리로 선보일 예정이다.티켓 가격 R석 1만원, 062-510-93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ool Wedding Event at Shinyang Park Hotel. Includes text: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Special Rate', and contact information: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Tel. 062)228-4711~2 / 062)221-4101~3'.

Advertisement for moviehelic featuring cinema listings for Columbus Cinema, Megabox, and Cinus. Includes movie titles like '정무문', '트랜스포머3', and '슈퍼에이트', along with showtimes and prices.